

정강선 민선2기 전북체육회장 취임

# “건강·행복·빛나는 전북 이뤄낼 것”

“전북이 체육 강도에서  
체육 선진도로 거듭  
앞만 보고 달릴 것”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합찬 도약’을 강조하며 장밋빛 전북 체육을 약속했다.

민선2기이자 제37대 전라북도체육회장 취임식이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렸다.

민선 초대 전북체육회장으로 당선됐던 정강선 회장은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임식을 치르지 않았고, 민선2기 연임에 성공하면서 취임식을 하게 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희망찬 전북 체육을 바라는 많은 체육인들과 취임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이행본부 운영장 총재, 장영달·정균환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체육영웅과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장정구 전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챔피언,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



정강선 제37대 전라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 윤만영 회장 등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인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사 대표, 도내 시·군체육회장, 체육원로 등 각계각층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체육인 현장 낭독, 민선1기 주요업적 및 체육인들의 바램 영상 상영, 치사, 축사, 특별상 시상, 축하 행사(성악·아이스카빙 등)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인들의 바램 영상에서는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통해 체육으로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강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민선1기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후 오롯이 전북체육 발전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벌써 민선2기가 출발했다”며 “지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

기에 민선1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북이 체육 강도에서 체육 선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선2기에도 앞만보고 달릴 것을 약속한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협업·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건강한 체육, 행복찬 도민, 빛나는 전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전북 아·태 마스터스 서포터즈 맹활약

## 대회 성공 견인 역할 ‘톡톡’

지난해 4월부터 230건 SNS 콘텐츠 생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서포터즈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포터즈들은 작년 4월부터 블로그 156건, 인스타그램 31건 등 230건의 SNS 콘텐츠를 생산했다

특히 서포터즈 노은하씨는 신소연 작가를 통해 방문자가 60만명이 넘는 ‘아하’ (https://m.blog.naver.com/nuh0566/222804202713)에 대회 마스코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 작가는 현재 군산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로, 주로 상징성 있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소연 작가는 마스코트 아자와 태치를 보며 국내외 해외의 체육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 같으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열린 D-200일 행사에도 참여해 행사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서포터즈를 추가 모집했다.

서포터즈 전체 모집현황을 보면 국내 서포터즈 327명, 외국인 서포터즈가 41명으로 외국인 서포터즈의 참여도 활발하며, 지역별로 보면 도내가 307명, 서울이 23명, 경기도가 7명, 기타 제주도를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3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대회, 종목, 행사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서포터즈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회를 널리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대회가 대략 78일정도 남은 만큼 대회의 브랜드를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차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할 가운데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은성기자

## K리그 40주년... 25일 ‘현대가 더비’ 로 8개월 대장정

출발 4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가 ‘현대가(家)더비’를 시작으로 8개월 대장정에 오른다.

2023시즌 K리그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로 막을 연다

울산은 지난 시즌 라이벌 전북의 리그 6연패를 저지하고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올랐던 전북은 지난해 울산에 왕좌를 내줬지만,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으로 자존심을 세웠다

올해도 양강 체제가 예상되는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은 초반 상위권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지난 시즌 우승 주역이자 최우수선수(MVP)인 이청용 등 주축 선

울산현대·전북현대, 개막전서 ‘맞대결’

K리그2는 내달 1일 2023시즌 킥오프

수들을 지켰고,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득점왕 출신 주민규를 데려왔다

또 스웨덴 미드필더 다리안 보이니치, 공격수 구스타브 루빅손 등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전북은 울산의 우승 주역인 일본 미드필더 야마노 준과 함께 울산에서 뛰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던 공격수 이봉준을 영입했다

또 브라질 출신 공격수 하파엘과 수비수 정태욱이 합류했다

2023시즌 K리그는 지난해와 같이 총 12개 팀이 참여해 10월 초까지 33라운드로 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정규라운드 성적에 따라 파이널A(1~6위), 파이널B(7~12위)로 나

뉘어 팀당 5경기씩을 더 소화해 우승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 K리그 강등권이 결정된다

K리그는 지난 시즌 최하위 성남FC와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김천상무가 강등되고, K리그2(2부) 우승팀 광주FC와 승강 PO에서 승리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격했다

울산과 전북의 양강 구도를 켤 다크호스로는 지난 시즌 4위로 창단 첫 ACL 출전권을 따낸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거울 국가대표 골잡이 황의조를 단기 임대로 데려온 FC서울 등이 꼽힌다

또 남기일 감독 체제에서 대대적인

영입을 단행한 제주 유나이티드도 4강권으로 분류된다

2부리그인 K리그2는 다음달 1일 열리는 6경기를 시작으로 2023시즌에 돌입한다

신생팀인 충북청주FC와 천안시FC가 가세해 참가 팀 수가 기존 11개에서 역대 최대인 13개로 늘었다

K리그2는 팀당 36경기씩을 치른 뒤 우수팀은 자동 승격되고, 2~5위는 PO를 통해 승격 여부를 가린다

K리그 4위와 5위 간 준PO는 11월29일, K리그 3위와 준PO 승리 팀의 PO는 12월2일이다

승강 PO는 12월8일과 9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K리그 11위와 K리그2 2위가 만나고, K리그 10위는 K리그2 PO 최종 승자(3~5위 중 승자)와 대결한다

/뉴스스

##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부문 후보 발표

각 10년의 세대로 총 4명 현역... 팬투표 내달 1~1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신설되는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후보 60인을 23일 발표했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선수(STARS), 지도자(LEDERS),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2023년을 시작으로 향후 2년마다 현역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선수 부문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의 의미를 담아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각 10년의 세대로 1명씩, 총 4명 선정해 현역할 예정이다

K리그 명예의 전당 후보선정위원회(위원장 정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위원석)는 임후보 기본조건을 충족한 200여명의 은퇴 선수 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 60명을 선정했다

60명의 후보는 은퇴시점, 데뷔시점, 나이, 전성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4개 세대로 각 15명씩으로 구분됐다

최종후보 60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자체 투표 △구단 대표자 투표 △미디어 투표 △팬 투표 각각 25%를 적용해 투표점수를 합산하고 세대로 가장 점수가 높은 1명씩이 최종 현역자로 정해진다

팬 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K리그 홈페이지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수 지도자 공헌자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연맹은 이후 트로피와 현역증서 수여, 소속 구단 홈경기 초청 등 오프라인 행사와 기념 영상 온라인 기념관 내 현역 등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K리그 명예의 전당 사상 첫 현역자들의 업적을 알리고 기념할 예정이다

/뉴스스

